E.H. carr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란 – ‘인류’의 역사(인간사)

But, 그 모든 것을 다 역사라 하는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Back to the basic (사실 그대로로 돌아가자)

그 사건 자체를 역사로 부르고 있다.

사건 : 과거 일 자체, 사실 : 과거의 사실을 현실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으로서의 역사(객관적 존재 여부) – 존재론적 의미, 기록으로서의 역사(그 객관적 사건이 인간의 인지를 통과한 여부) – 인식론적 의미 인식론적 의미를 통상 역사의 의미로 이해한다.

역사를 공부한다 – 역사의 ‘용어’를 이해한다.

유학자 김부식 – 삼국사기 (단군 신화 포함x)

승려 일연 – 삼국유사 (단군 신화 포함) – 민족적 정체성 확보(몽골침략시기)

고대 해석 여부의 중요성 – ex) 식민사학 개입

(한 4군 기록, 가야 지방 유래 기록 – 임나일본부설)

지배 계층 제외 피지배 계층의 생활상의 기록 부족

So, 기록된 것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기록자가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 인지기에 절대로 주관성을 기피할 수는 없다! ) ex) 사관 of course, 절대적 사실 자체를 기술할 수는 없다. (절대 != 객관)

Hegel ‘역사철학＇ ; 1. 객관적 의미의 역사 ( 일부 보여진 것만 알 뿐 전체를 알 수는 없다 – 인지되지 못하는 ) , 2. 주관적 의미의 역사 ( 기록된 역사 )

So, 역사책 속의 기록된 역사는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주관성이 담긴 사실일 뿐이다.

‘객관적 자세’ - 역사가의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태도

사실 – 사건을 거짓없이 객관적으로 기술

사건 – 일 그 자체

모든 사건이 다 역사적 사실은 x, 그 중 의미가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사적 사실로 간주

역사적 사실 – 역사가의 사건에 대한 재구성

‘사료’ –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는데 필히 필요한 자료

사료 – 문헌 사료, 비문헌 사료

실증주의 사학 – ‘문헌 사료’를 중요시 간주

(랑케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비문헌사료 – ‘상상’과 ‘추론’이 어느정도 개입, 고고학적 자료로만 접근할 수 있는 시대 – 선사시대 (문자가 없던 시대니) ; then, 추측에 의존해서 ( 인간이라는 공통성에 근거 )

문헌 사료 – ‘증언’ ‘기록’의 측면에서 객관성 높다.

문헌 사료 – 그 시대의 사람이 기록한 사료 (제1차 사료 또는 원사료)

* 그 이후 사람이 기록한 사료 (제2차 사료)

사료를 그대로 사실로 간주할 수 없고 사료의 신빙성을 검증해야…

(사료 비평의 단계를 거쳐야한다.)

1. 외적 비평 : (=문헌 비평) – 원본이냐, 사본이냐, 저자가 누구냐, 시기와 장소는(언제 어디서 기록?)
2. 내적 비평 : (=문학 비평, 내용 비평)

문헌 사료의 사본 간 오류가 크다. 그럼 어떠한 사료를 사용할 지? 그 방법이 바로 사료 비평.

역사학자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 있다. ( 이것은 각자 인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과 얽혀 있다. 이 역사관을 갖은 채로 역사를 보게 된다. )

“역사관”

1. 역사의 동인(?)에 따른 분류 :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뭘까?

: hegel의 “관념론”

: karl marx “유물론”

관념론 :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정신이 갖고 있는 지향성으로 향해가는 것. (즉, 절대적 정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해 가고 있다고 역사의 흐름을 간주 )

Ex)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속과 재림의 역사도 관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Hegel 曰 Der Geist ( The spirit ) – 절대적 정신

이 절대정신의 본질은 “자유”! 이 자유가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구현되는 지가 역사의 발전

Hegel “왕은 지 멋대로 행동해도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동양 역사는 ‘자유’의 역사가 없었다.” “그리스에서 자유의 역사가 생겨났다(?)” – 자유인과 비자유인을 법적으로 구분해놓아서…{하지만 그리스 역시 비자유인 같은 구속이 있었기에 완전한 자유 사회는 x} – 게르만 사회에서 완전한 자유가 발현되었다.(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 게르만 주의….별루네

; Hegel은 발전론 기반

유물론 :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은 ‘물질의 생산’ – 절대적 존재 따위는 없다!

역사 발전의 패턴을 말하는 역사관이 ( 순환론 – 정체론 – 발전론 ) 있다.

1. 역사 변화의 양상에 따른 분류
2. 순환론

; 동아시아의 전통적 역사관, 우주적 질서를 순환과 반복으로 간주 (음양오행설)

; 단대사적 역사서술(왕조의 순환) : 왕조 창건 – 제도 확립 – 절정기(태평성대) – 쇠퇴기(제도 파괴, 관료 부패, 빈부격차, 왕권 약화) – 멸망 {정치사적 관점} – 지배층의 기록, 역사

; 왕조로 역사 구분 ( 삼국시대, 고려시대, 남북국시대, 조선시대 등 )

1. 직선적 발전론

; 계몽주의적 보편사적 관점, 인류 역사의 보편적 진보에 대한 신념

; 서양사 중심 3시기 구분( 고대 – 중세 – 근대 )

; 유물론적 발전론 : 고대 노예제(사회) – 중세 봉건제(정치) – 근대 자본주의(경제) – 공산사회

: 역사를 생산관계에 따른 계급투쟁으로 간주 ; 시대성 key word

; 헤겔의 관념론적 발전론 : “자유!” 의 확대

: 동양의 전제군주제 – 지중해 그리스와 로마(자세한 정보는 위 참고)

; 식민 지배의 정당성 부여 ( 사회 진화론과 연계 )

1. 정체론

; 근대 서양인들의 동양사관(Orientalism) – Bias!

Orientalism에 대한 디테일

* 전제 군주(왕의 절대적 권한) ex) 중국 황제, 이집트 파라오
* 관료제 : 직업적 전문 관료 ( 어렸을 때부터 예비관료로 교육 ) – 서양과의 차이
* Why? 이러한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었을까? : 큰 강에서 형성된 ‘수리문화’(?)

(수리 – 물을 다스리는 ) – 황하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등

노동력을 통치하기 위한 강한 권력 필요 – so, 전제군주제와 관료제 등장

; 동양은 고대 문명의 정점에 달한 이후 수천 년에 걸쳐 질적 변화가 없었다.

; 한 대에 이르러 중국 고전문화가 완성

( 유교, 관료제와 관료주의, 황제통치체제, 한자, 중화사상 등 )

; 식민 사관의 종류 중 하나 ( 동양은 서양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

‘제자백가’ ; 여러 학자(공자, 맹자 등)의 사상이 난무했던 시대 – 춘추전국시대

; 이후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 다양한 사상을 모아 하나로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

; ( 유가! ) – 유교지 – 지배 이념으로 확정된 것은 한 무제때

; 봉건제의 경우 ( 지방 관료들이 중앙의 통치를 받지 x ) –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료제 도입 ( 왕의 중앙 집권화 강화 )

; 진나라 때 봉건vs관료, 한나라 때 종결 – 관료제 채택

; 황제 체제도 진시황때 실시, 한나라 때 고착

; 일본의 막부도 유럽의 봉건제…

; P79~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관 part VS 민족주의 사관 파트 읽어보기!

1. 토인비의 발전론적 순환론 (나선적 순환론)

; 역사의 발전의 기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 헤겔의 정반합적 사고

; 도전과 응전의 반복속에 일정의 진보

1. 슈펭글러의 유기체론

; 문화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명체로 인식

; 탄생,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사망

; 중국의 역사는 한대 이후 생명이 없는 화석의 상태로 외적 영향에 의한 변화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 – 정체론과 일맥상통

식민사관 (with JAPAN)

1. 타율성론 ; 한국사가 주체적으로 흘러가지 x

근거 : 지정(지리,정치)학적 요인 ( 한반도 – 대륙의 강력한 세력 or 해안의 강력한 세력 안에 껴 주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려움? ) – 이 요인이 민족성에 영향이 있다고 일본인들이 주장 뭔 억지냐..

반례 ) 고대 로마 – 반도 국가인데 대륙으로 진출한 case

1. 당파성 ( 분파성 – 조선의 사색당파 싸움 포커스 )

; 조선 사회는 맨날 파를 나누어 싸운다. (붕당 정치)

1. 정체성론 ( 일본의 무사통치기간 – 서양의 봉건제와 동일시, 일본 曰 정체성론의 보편적인 발전에 따름 일본은 )

; 한국은 반대로 진화하지 못한 사회 – 일본의 지배를 받아라

1. 사대주의 ( 타율성론과 유사 ) – 중국에 의존

외교상 사대 정책을 채택한 거랑 사대주의랑은 엄연히 다르다!

(ex) 광해의 중립외교

한국사의 왜곡을 위해 고대사를 건듦 ( 한4군, 임나일본부 등 )

청동기 이전은 문명은 존재x, 문화는 존재

(최초의 문명 –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화 중 일정한 질적 수준에 이른 것을 문명이라 칭함

Civilize ( 도시화 ) – Civilization 문명

Indus 문명( BC. 2700~ )

인도 역사 – 이주한 민족에 의해 ( 아리아인 - Aryan ) – 이란인들의 이주

쐐기 문자 사용 ( 상형문자 – 신성문자, 민족문자 ) – 점을 주관하기 위해(왕이)

인도 문명을 건설했던 이들은 문자가 있었을까? – 당연히 문명이 있었는 건 문자가 있었다.

이주해 온 아리아인들은 문자 있었다. (산스크리트어)

신화는 기록으로 남겨도(신적 역사) 인간사에 대한 디테일한 기록을 남기지 x

But 중국은 예부터 인간사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 ( 역사의식 有 )

그리고 그 역사인식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Rig, Sama, Atharva, Jaiur veda???

역사 의식 : 자신의 느낌, 판단, 자기 의식(?) , 주관적 반응이 포함

역사 인식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 ( 정확성 여부가 중요 )

역사 인식은 맞다, 틀리다 판가름 가능

역사 의식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사를 의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족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래.

역사의식 : 역사인식 + 개인(혹은 집단의) 주체적 반응

Ex) 역사 기록의 중요성 인지, 사회주의(공산주의)나 계몽주의(미숙함 – 완전함으로, 지들 나름의 틀로)

“역사의식는 현세의 정치적, 국제적 입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 – 일본의 자세, 객관성이 매우 떨어진다.

과제 – ‘기전체’로 나의 가족의 역사를 서술하라..(내가 역사가가 되어 – 11/14)

본기 – 내 이야기

열전 –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서 – 주제별 에피소드들..

동양의 역사 기술 방법

1. 편년체 :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적 사건을 기록 ( 특별한 주제 x ) ex) 고려사절요, 춘추(중국역사책, 공자가 저술, 춘추시대를 다룸)
2. 기전체 : 사마천이 발명 ex) 사기, 고려사

: 본기 ( 천자들의 전기 ), 세가( 제후들의 전기 ), 열전( 명사들, 외국 등등 의 전기 ), 표(도표, 연표)

서(주제별 역사, 경제, 천문지리, 제도 등)

과제에서 이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ㅠ(세가만 좀..)

서는 ex) 신앙사, 경제사 등등

역사의 이해 54P 꼭 참고해라

과학적 방법론 : 증명할 수 있는가?

( 관찰, 가설설정, 반복적 실험(가설검정), 법칙수립 )

증명 : 실험이 가장 좋겠지.. 하지만 그게 제한되면 계속 관찰을 해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 ‘이성’ ‘합리성’ 강조

: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 인간의 이성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 )

; 성경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종교개혁도 중세의 종말을 도래하는 한 계기가 됨 – 권위주위를 탈피하고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개인이 제사장의 권리가 있다. )

실증주의와 현재주의

실증 : 논리나 관념에 의하지 않고 실물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증명함

; 과학에 얻어지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 ( 철학의 방법 = 과학의 방법 )

Auguste Comte (콩트)

: 실증주의(positivism) 철학의 창시자

: 유명서저 (실증철학의 세계)

: 인간 역사학의 3단계설

종교적(신화적 단계) – 형이상학적 단계 – 과학적(실증적) 단계

종교적: 인간의 운명이 신에 의해

형이상학적(철학적) : 본질, 궁극적 원인, 추상적 개념(정신, 자유) 등으로 설명 ex) 헤겔, 토인비

과학적: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식한 단계로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설명 = 현대

실증 주의 내 인식의 전제

: 사실에 관계된 모든 인식은 경험에 의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 사실을 초월한 인식은 순수 논리와 수학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근대 이후 우리 사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관

과거의 사실이 역사가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한 채 연구될 수 있다고 보는 사관

랑케 – 실증주의 사학의 창시자! – 콩트랑 다르다!

Walter Scott의 낭만적 역사 접근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당시의 역사 접근법은 헤겔류의 관념적 역사관과 낭만적 역사관(재미와 유흥을 위해 픽션 삽입등)으로 접근했으나 스콧은 사료 비평의 방법을 통한 객관적 역사서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랑케의 사관에 영향을 줌

실증 사관은 (랑케는)

역사사상은 역사주의(조사 하자)를 계승했다 – 공부!

엄격한 사료 비판을 강조했다. (고문서나 문서 기록 등 공인된 사료의 사용을 권함)

; 사료는 1차 사료인가?, 인용자료는 인용경위, 인용하기 위해 어떠한 분석을 거쳤는지

; 사료 속 의견과 사실 분별

; 이론, 원리에 따른 역사 서술x, 사건 사실 자체의 객관적 진실에 접근할 것을 요구

; 사료 없는 역사 서술을 거부 – 정치사 중심의 연구(?)

; 역사를 관념론에서 벗어나게 해 독자적인 과학적 학문으로 분류

;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림

실증주의 사학의 출현 배경

: 계몽주의,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 등에 대한 비판적 사조들

: 낭만주의, 역사주의, 과학적 세계관, 독일식 진보사상인 관념론(헤겔)

(계몽주의는 이성, 낭만주의는 감성)

(역사주의 – 모든 개체를 이해하려면 그 개체의 하나 하나의 역사{그 개체 하나의 역사의 발전을알아야, 이 개체 하나하나가 역사 발전의 산물로 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 관념론처럼 독일에서 유래

일정 수준 이상을 문명! (문명은 문화의 하위 집단 – 그 일정 수준을 보통 청동기로 본다!)

Wie es eigentilich gewesen ( how actually it is)

청동기!

메소포타미아 문명(B.C 3500~) 이전에 이미 청동기 문명 사용

B.C 3500년 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구리 장식물 발견..

우리나라의 청동기와 중국 은나라의 청동기의 유래가 다르다

그럼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어디에 유래했는가?

인더스문명이 넘어와 시베리아 문명을 거쳐 건너왔을 것이다….(비파형 동검..중국엔 x,)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

고인돌 – 동아시아 지방에만 보이는 특징!

민무늬 토기 – (빗살무늬에 비해 강도가 높고 안정성이 좋음)

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짐. ( 국가와 문자 발달, 사람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법이 생김 )

But, 문헌 사료가 보이지 않아 청동기 시대는 역사시대가 아닌 선사 시대로 분류한다.

사화사 – “인구”를 기반으로, 사회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분화’가 나타난다.

수직적 사회 분화 – 계급 탄생

수평적 사회 분화 – 분업, 일의 전문화

한국 초기의 역사( PPT 참고 )

고조선(단군 조선)

(성읍 국가) : 유럽의 polis와 유사… 국가의 초기 형태

도시국가가 아닌 성읍국가라 칭하는 이유?( 도시의 크기에 미치지 못함… 마을 단위 )

성읍 국가의 ‘장’ : “군장”이라 칭함

주변의 다른 성읍 국가들이 서로 합쳐져 – ‘성읍국가연맹’ 구성

이 국가 연맹의 장을 왕으로 지칭..? (그 시대에 따로 칭하는 말이 있었을 듯..)

제정일치 ( 제사장이자 정치적 왕 )

고조선(기자 조선)

‘기자’ – 중국에서 이주한 인물, 은나라 왕족 출신, 은 주 교체 시기에 조선으로 이주, 1000명 정도 같이 이주. 중국의 선진 문명 유입.

사기 – 기전체, 삼국 유사 – 기전체 x

이들이 넘어오면서 기존 단군 조선 세력들은 평양으로 중심지를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

고조선 (위만 조선)

춘추 시대 – 전국 시대 – 진나라 통일

진 멸망 후 위만의 이주

‘한서’ – 반고라는 인물이 저술 (후한 인물 – 전한시대를 기록)

통사 ; 시대를 몇 개 관통해서 기술

단대사 ; 왕조로 끊어 구분

뒤르켐 ; 공동체 사회, 이익 사화, 역사 이전 원시 공동체 사회

공동체 사회 :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 귀속성 (ex) 혈연집단 (지연, 학연 등)

고조선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 구축

연맹 왕국!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 목축 사회, 기마 민족으로 추정

영고라는 축제가 있었다. ‘우제점복’ – 소 발바닥으로 점을 침

형사취수제 ( 형 사후 형 부인을 내 아내로 )

고구려에 의해 멸망

현도군 고구려현 – 연맹체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왕족)

압록강 유역(졸본)

삼한 – 신지, 읍차 & 제정 분리(천군)

옥저, 동예의 ‘삼로’

한 4군 – (군 아래에는 현으로 구성- 현까지는 중앙정부가 관료파견, 현 아래는 향, 리 – 그 중 향을 관리하는 인물 삼로(3명의 노인)) –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후와 읍군도 비슷한 유래

고대 국가 – 고대 사회는 다 ‘노예제 국가’(특히 유럽) – 동양은 귀족제 사회(노예도 있었겠지)

; 역사적 의미 : 국가체제를 갖춘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고대국가를 형성한 조건?

( 권력의 집중{왕조성립}, 국가 체제 정비, 귀족 사회, 중국으로부터의 선진문물 수입 )

신라

김씨 시조 – 김알지(계림에서 – 알에서 나옴)

김미추 최초 왕, 내물 마립간 이후 김씨 독점, 그 때부터 제정분리

나정 – 박혁거세 태어난 곳(?)

법흥왕 – 법제화된 귀족제 ( 골품제 )

국가 체제의 정비 – 귀족회의!! ( 수도에 귀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 – 중앙귀족제{왕족 중심} – 관직 독점 )

고구려

: 국상, 대막리지, 대대로 – 수상의 개념

:

신라

: 상대등 – 수상의 개념 (귀족 대표)

고구려 – 부 군 경 순

백제 방 군 담로 순

신라 주 성 군 현 소경 순

행적 조직과 군사 조직 일치 – 신라와 백제(신라 – 6정과 백제, 백제 – 방령) 늘 전시체제

고대의 중앙 귀족 – 혈통으로 간주 (귀족이냐 아니냐를) – 신라의 경우!

고려의 문벌 귀족 – 한 가문의 역사 등으로 간주, 가문의 수치가 있는 일이 있으면 귀족으로 더 이상 간주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이 삼국시대는 대부분 전시체제인 경우가 많았음 – 일반 법이 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고로 형법이 매우 엄격했다.

한국의 언어의 기원어 – ‘교착어?’ – 만주어, 일본어, 몽골어, 메소모타미아 문명 지역의 언어 (쐐기문자)

인도, 유럽어 – ‘굴절어’ (동사, 명사의 변형을 통한 문법기능)

굴절어와 교착어 – 사전 조사 공부하자

그냥 교양을 쌓자

통일 신라의 통일 의미: 세 나라의 통일과 중국으로부터 전쟁 ( 한 민족으로의 공동체 의식 )

: 한반도는 한민족 고유의 땅으로 인식됨

: 전시 체제로 흘러갔던 행정조직과 형법이 전부 군사조직과 군법과 구분됨

왕권이 가장 강력할 때 – 통일이 진행되는 근 100년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 – 새로운 관료기구 형성 – 전문화된 중앙 행정기구 ( 귀족이 아닌 행정 관료들을 통한 통치 – 이 관료는 귀족이 아닌 6두품 등 비귀족 출신 관료들이 많음 , 왕이 군사권을 직접적으로 쥐게 된 시기- 신문왕, 무열왕, 문무왕 등 )

신문왕 – 녹읍, 식읍 ( 토지 개혁 – 녹전제를 관료전 – 귀족의 경제력 약화 ) – 반발이 당연히 심했겠지

9c 중반(통일 신라 중기) – ‘호족’이란 지배층 등장 – 자신의 능력으로 지방에 분포한 지배 세력

호족의 권력의 바탕 – 지방의 군권과 개인의 실력?(6두품 같은 실력이 있으나 등용되지 못한 이들 { 몰락한 중앙 귀족(궁예), 6두품, 지방 요새의 군인, 대상인(왕건, 장보고) 등 } – 경주에 치우친 수도의 성향상 지방 영향력 약화

호족에 의해 신라 분열 – 후삼국시대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삼국시대 – 남북국시대(통일신라, 발해) – 후삼국시대 – 고려 – 조선

중세!!

고대 – 노예제(사회) 사회관계 중시

중세 – 봉건제(정치) 정치관계 중시

근대 – 자본제(경제) 경제관계 중시

뭐가 중시되냐의 차이

고려는 중세인가? 나아가 봉건제 사회인가? ( 주군 – 봉신 계약 관계 – 쌍무적 권리와 의무 )

원시 사회 – 고대 사회 ( 점차적 이익 사회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고대 사회는 공동체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고대 – 중세 ( ‘계약’이라는 틀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이익 사회적 성향을 많이 띄기 시작함 )

‘뒤르켐’ (Durkheim)

: 게마인 샤프트 ( Gemeinshaft ) : 공동체 –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 귀속성이 집단 소속의 자격(소속감을 느끼니 안 느끼니) ex)학연, 지연 등

: 게젤 샤프트 ( Gesellschaft ) : 이익 사회 – 특별한 목적 하에 형성, 합목적성이 집단 소속의 자격(이 사람이 이 집단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In Marx, renin, Angels

: 원시 공동체 ---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공동체적 사회에서 이익 사회로 분화되어 왔다.

게마인 샤프트가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해체되가고 있다…

또한 게젤 샤프트에 게마인샤프트적 속성이 개입하면서 여러 비리들이 등장 ex)조국사태

농노는 자유민이 아니라 장원영주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존재. – 거주 이전의 자유x 이러니 시장이 발전 하겠나… 한 장원당 자급자족 사회 – 시장의 거래가 없기에 (자연경제) – 경제력이 줄 수 밖에…

계약적 관계이지만, 주군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게 농노

(즉, 고대의 노예제 성격과 근대의 계약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음. 이래서 중세라 칭함)

일원적 가치관이란? : ‘종교’(고려 – 불교, 유럽 – 카톨릭)

봉건제를 한국 사회에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다…

정확한 이유가..? :

고려 : 지방 관료를 파견 ( 중앙에서 통제 ) 임면, 파면 등….

유럽의 영주의 경우 왕에게 땅을 받으면 알아서 통제..

즉 관료와 제후의 차이…

즉, 한국 사회는 전통적 봉건제라고 볼 수 없고 관료제로 보아야…

그래도 고려 사회를 중세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기준선

: ‘호족’ – 기존의 혈연 귀족제를 파괴시킴

이후 호족 세력이 문벌귀족이라는 세력으로 고착… (무신 정변 이전까지 고려 사회를 지배) – 지위가 세습.. 혈연귀족과의 차이(혈연이 절대적 영향, 문벌귀족의 경우 – 가문.의 지위에 따라.. 가문이 멸절하면 끝, 혈연귀족은 가문이 멸절해도 지속 “혈연<역사성”)

고려 극 초기 – 호족시대 ( 9c ~ 10c) – 왕과 호족의 연합적 통치 – 왕건의 회유, 강경책

고려 전기 – 문벌귀족( 11c~ 1170) – 문벌귀족(인천 이씨 - 이자겸 안산 김씨 - 김홍도 ) 전성기

문벌 귀족이란 용어를 ‘관료 귀족’이라 하기도 함!

혼인관계로 권력 유지

고려 중기 – 무신 정권(1190~1270 – 몽골에 대한 저항 포기 : 고려의 수도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 – ‘교정도감’ 통치 기구 – 흐름 파악해보자

고려 후기 – 몽골의 간섭, 권문세족

고려 멸망 – 조선 건국

왕건의 회유책 – 사성 정책? 기인제도 사심관 제도?(견제책) – 공부하자

왕이 직접 호족들의 딸을 왕후로

사성정책이란? – 성을 하사한다….

기인제도 – 중앙에 인질로 수도에 머물게 함(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유사)

사심관제도 – ‘경순왕’ – 경주 일대의 영향력 큼, 경순왕을 사심관으로 파견 ( 중앙 관료를 지방 견제를 위해 파견 )

북진 정책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 공부!

묘청의 서경파 – 금을 무너뜨리자 ( 고구려 계승 )

개경파 – 김부식 : 금과 화해하장 ( 신라 계승 )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의 적대 ( 서희, 강감찬, 등 ) – 송이 거란에게 괴롭힘당함.ㅠ

중앙 정부가 관료 파견을 못했다? – 사심관은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지 x 단지 호족을 경계하는 업무에 불과

고려는 ‘관찰사’ – 행정업무를 관찰 – 호족들이 행정 업무 직접 담당. 즉 관료 파견x

고대 – 중세 – 근세 – 근대 (근세가 정확히 뭘까? 공부해보자!)

이 4시기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중요 Point!

10c 이전 왕들

‘광종’!! – 왕권 강화에 포커싱 (피의 군주 – 호족들을 숙청.. 겁나 잔인했다고 함) – 전성기를 꽃피우기 시작한 왕

‘노비 안건법’ – 노비들의 신분을 살피는 제도? – 본디 노비인지? 양민인데 강제적으로 노비인지? 신분을 확인해보자! – 호족을 견제한 정책(노비는 호족의 소유이기에 왕의 세력 안에 없다.)

‘과거제’!! – 무능한 관료가 아닌! (기존에 전쟁을 잘한 무신들이 많이 관료.) – 쌍기가 만듦.

고려시대의 과거제로 뽑힌 관료들 – 문관들 : 유학자들(한문을 해독할 줄 알았기에)

문과(제술업-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 명경업 – 유교 경전) 잡과 (무과는 없었다)

중국 출신 귀화 관료를 많이 채용. 중국의 선진 정책들을 배우고 적용.

성종 – 본격적으로 문벌귀족 시대의 시작! – 업적이 많으니 꼭 정리하자

통일신라의 태학보다 고려의 국자감이 더 지위가 높았음

낮은 행정단위의 군, 현 ( 2가지로 분류, 주군 – 지방관 파견, 속군 – 지방관 파견x )

주현, 속현도 마찬가지 – 아마 속군, 속현은 향교, 향약이 설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현종때 본격적인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

개 중요! ‘5도 양계’

12목은 8목으로 축소

도 – 부(지금의 시 느낌) – 군,현

목은 광역시 느낌

1개의 군은 3개의 현으로…(신라),

고려는 현이 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 독립적인 행정기관일 뿐! )

조선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군과 현은 독립

역시 고려의 부를 통치하는 부사가 군을 통치하는 군수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위가 높다고, 부사가 군수를 지배하는 느낌은 아니다!)

속군과 속현은 여전히 구 호족 출신이.. – 이들이 향리나 호장이 된다!

향리나 호장들의 권한을 지방관이 intercept

통치 방식만이 – 유학으로

종교는 불교로…

3성 6부!! –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 중국체계 당나라

고려는 당나라의 제도 차용, 송나라와 많이 유사 – (중서문하성 상서성 ) – 2성 6부

고려의 중앙정부조직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중서성, 문하, 상서 – 왕의 자문기구로 시작

중서성 – 정책의 초안을 작성

문하성 –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왕의 결정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문하성의 장 – ‘문하시중’

최종 결정된 정책을 상서성에서 집행

이후 6부에게 명령 하달

이 병 호 예 형 공 (외우면 좋다!)

“중추원”(추밀사) –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왕래하는 문서를 관리하는 기구!

: (군국기무)에 관한 것도 자연스레 관리하게 된다. 문서를 관리하다 보니…

조선의 승정원…

‘도병마사’ – 2성 + 중추원 (회의) : 도병마사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보자!

‘삼사’ – 재정을 담당 – 조선의 삼사와는 다르다 ( 조선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 왕의 간언 기관)

향, 부곡, 소, 진, 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비는 ㄴㄴ, 단지 천민 – 일이 좀 천한 사람들

지방관 – 행정, 조세, 치안, 재판, 유사시에 군사권… 권한이 강하더라

지방관을 고향으로는 파견하지 않는다! – 회피제! 지방권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금의 성장 이후

김부식 – 사대 정책

묘청 – 북진 정책

고려시대의 백정은 양인이었다.

‘움서제’ – 5품 이상의 문관 무관은 가족들 가운데 남자 1명을 낭관에 임명할 수가 있다!

신분내혼제 –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 (인주 이씨 – 이자겸)